

# 영암군, ASF·AI·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 거점소독시설 등 차량소독 구제역 백신 100% 일제접종 郡자체방역단 운영 철새 도래지 농로·간선도로 등 집중

영암군이 동절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가축질병방역상황실을 중심으로 1곳의 거점소독시설과 1곳의 액비유통시설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차 4대를 이용해 양돈농장 출입구와 주변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방역에 힘쓰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에 울타리사업과 소독약품, 멧돼지 기피제, 생석회 등을 공급해 농가의 자율 차단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과 11월 2차에 걸쳐 상대적으로 방역시설이 미흡한 소규모 양돈농가와 야생멧돼지 접촉이 쉬운 입야내 방목돼지사육 농가 등 총 7농가에 120여두의 돼지를 수매·도태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지역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1천400호·10만7천66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해 100% 접종 완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AI유입 차단방역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철새도래지인 영암호

주변에 해군 3함대 제독차 1대를 지원받아 매일 주요 도로를 소독하면서 군 자체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차량 5대와 광역방제기 1대를 이용, 철새도래지 주변 농로, 간선도로 및 주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해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산호 낚시 활동 금지 홍보 현수막 30여개를 영산호 주변에 설치하는 등 AI 취약지역 및 지난 5년 이내 AI가 발생한 오리사육 농가 32호(전남도 72호중 4%)에 대해 사육 제한을 실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철새가 남하하는 겨



영암군은 최근 동절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군 자체 방역단을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 제공

울철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민·관·군 합동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도 가축전염병 농가차단방역수칙 철저 이행 등 농가 차단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완도군이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에서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홍보관을 운영, 해양치유 식품 등으로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완도군 제공

## 한-아세안 정상회의장 '완도 해양치유 홍보관' 인기

### 광주·전남 지자체 중 유일 운영...1천100여명 방문 관심

완도군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에서 광주와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홍보관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완도군은 1일 "최근 이틀 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에 참가해 해양치유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국가 정상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전국 지자체 중 부산을 제외하고 완도군이 유일하게 홍보관을 운영하게 돼 해양치유 산업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소개, 해양치유 식품인 꽃차 시음, 해조류로 만든 먹거리 시식, 다시마 마스크 팩 체험, 해조류 추출물을 첨가한 수제 화장품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정상회의 장의 삼엄한 경비로 출입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외국인 포함 1천100여명이 홍보관을 찾는 등 성공적인 홍보를 펼쳤다. 특히 해양생물치유의 대표 자원인 미역과 다시마 추출물을 첨가한 핸드크림과 미스트, 다시마 마스크 팩은 여성 외국인들이 대단한 관심을 나타내며 판매 문의가 이어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장에서 완도 홍보관을 운영한 것은 군과 해양치유산업, 지역수산물에 대한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무안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논의

무안군은 1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교육청, 경찰서 등 각계각층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위기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함께 발굴하는데 역할을 두고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모두가 연계해야 한다"며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전원태기자

## 영광군,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 시·군 선정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자치법규 정비 등 호평

영광군은 1일 "2019년(20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시·군 평가에서 6위를 달성,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 주요 정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해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년마다 실시되며 영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남 시·군 중 6위를 달성했다.  
우수 성적을 거둔 평가지표로는 빅데

이터 활용 활성화, 자치법규 정비, 규제 정부합동평가 전남도 시·군 평가에서 6위를 달성,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1억원, 포상금 1천500만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평가 유공 부서 포상 및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부서 보급에 활용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2020년 평가에는 최상위권으로 도

약한다는 전략이다.  
영광군은 2020년 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연초부터 부군수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당 부서장, 팀장이 참석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부진 지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평가 대상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집중 관리해 내년 평가에서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목포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 영예

### 여행사 친화적 지자체 뽐내 맛 브랜드 콘텐츠화 등 호응

목포시가 서남권 관광거점도시의 매력을 전국에 알렸다.  
목포시는 1일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9 한국관광진흥회의'에서 국내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지역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를 상징하는 '2019 여행사 친화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진흥회의(KATA Congress)는 국내 1천200여개의 주요 여행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여행업협회가 대한민국 관광 진흥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여행업계 최대 행사다.  
올해는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과 여행산업의 미래예측을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토론과 함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목포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하며 맛 브랜드를 선점해 관광상품화 한데 이어, 국제슬로시티 가입,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행사 개최,



국내 최장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문화예술품을 관광콘텐츠화한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 등의 연이은 성공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전남 서남권의 관광활성화도 함께 이끌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이번 선정은 어떤 업종보다도 고객들의 만족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여행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천만 관광도시를 향한 목포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멋진 결과이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최고의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 진도군, 구기자 가공제품 출시

진도군이 구기자를 활용한 가공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우수한 효능을 갖고 있는 구기자를 휴대와 먹기 편하고 장기간 보관하면서 섭취할 수 있게 액상스틱, 농축액, 구증구등 등 3종의 가공제품을 개발·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품명 '진도 구기자 365'는 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기술 개발과 상품화 등을 지원했다. 특히 우수한 효능의 진도 구기자를 소비자들이 쉽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품화를 새롭게 추진했다.  
진도 구기자 365 제품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 예정이며, 농축액 병제품은 진도군 관내 카페 등에 공급해 구기자차로 판매되고 있다.  
구기자는 몸에 좋은 성분인 베타인, 제아잔틴, 루틴, 다양한 비타민을 다량 함유해 동맥경화와 고혈압과 빈혈·시력 감퇴 예방, 간 보호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우수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2007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돼 전국 생산량 20%를 차지하고 있는 진도 구기자는 현재 300여 농가가 30ha에서 연간 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도=박세권기자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마트 운영 중
- 매매 - 9억원 (대출 2억 5천만원 포함)
- 임대 - 협의
- 문의. 010-6834-7400

